

# 1990년대 한국의 『은하영웅전설』 수용에 관한 고찰\*

— 1990년대 초반 베스트셀러와의 비교 연구

이 석\*\*

## 요약

1991년에 번역된 『은하영웅전설 (은영전)』은 9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며 오늘날까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90년대 베스트셀러인 『상실의 시대』(1989)와 『영원한 제국』(1993)을 『은영전』을 비교해 90년대 담론 질서 속에서 『은영전』을 파악하기로 한다.

『상실의 시대』는 한국에서 거대담론이 실추한 90년대의 정서를 대변한 작품으로 많은 화제를 모았는데 『은영전』도 절대적인 신념에 대한 회의를 그리며 『상실의 시대』와 유사한 주제의식을 담고 있다. 『상실의 시대』와 더불어 『은영전』은 90년대에 유행한 해체주의를 반영하고 있었다.

한편, 『영원한 제국』은 '정조 신드롬'이나 '박정희 신드롬'과 같이 보수적인 권위가 부활하는 90년대 분위기를 표현해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올랐다. 이에 반해, 『은영전』은 영웅서사의 형식을 빌려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끊임없이 상대화했다. 90년대에 『은영전』은 역사의 권위를 탈구축하며 『영원한 제국』과는 상반된 관점을 제시하는 데 성공했다.

이와 같은 비교 연구를 통해 『은영전』은 해체주의와 상대주의를 형상화해 90년대에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상실의 시대』, 『영원한 제국』, 포스트모던, 해체주의, 역사소설

\*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22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천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조교수

목차

1. 서론- 90년대 한국의 베스트셀러, 『은영전』
2. 『상실의 시대』와 『은영전』의 해체주의
3. 『영원한 제국』과 『은영전』의 역사 서술 형식
4. 결론

## 1. 서론- 90년대 한국의 베스트셀러, 『은영전』

다나카 요시키(田中芳樹)의 『은하영웅전설』(이하 『은영전』<sup>1)</sup>)은 1982년에서 1989년까지 도쿠마서점(徳間書店)에서 본편 10권, 외전 4권으로 출판된 SF 소설이다. 이후 『은영전』은 출판사를 바뀌가며 40여 년 간 변함 없이 인기를 끌어 일본에서만 1500만 부 이상 팔렸다. 그래서 SF뿐만 아니라 일본어로 쓰인 소설 가운데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한 작품이라고 일컬어진다. 이 소설은 영웅적인 전제군주가 이끄는 은하제국과 붕괴 직전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자유행성동맹이 대립하는 가상의 역사를 장대한 스케일로 묘사하며 일본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은영전』이 90년대 한국에서 번역되어 일본에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다는 점이다. 『은영전』은 최학준 번역으로 1991년에 을지서적에서 본편 10권, 외전 4권으로 출판되었는데 발매 즉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sup>2)</sup> 90년대에 『은영전』을 읽은 독자는 백만 명

1) 본 논문에서 인용한 『은영전』의 출처는 모두 다나카 요시키 (지), 최학준 (역), 『은하영웅전설』 1-10, 을지서적, 1991.이다. 2권 174면을 인용할 경우에는 (2-174)라고 표기한다. 각주 2에서 지적했듯이, 최학준의 번역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 그러나 90년대 한국에서 『은영전』이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당시 큰 인기를 끈 최학준의 번역서를 반드시 참고·인용해야한다고 생각한다.

2) 원문을 자의적으로 첨삭하거나 변형시키는 등 최학준의 번역은 원작에 충실하지 않다. 오역이나 생략도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원작인 田中芳樹, 『銀河英雄伝説 2.野望篇』, 徳間書店, 1983, p.125.에서는 안 웬리가 도리아 전투 직전에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된다. 이를 인용하

에 이른다고 추정된다. 또한 1997년에 KAIST 도서관 교양서적 대출 순위 1위를 차지하고<sup>3)</sup> 2001년도에는 서울대 도서관의 대출 순위에서 2위를 기록하는<sup>4)</sup> 등 『은영전』은 2000년대 중반까지 여러 대학교 도서관에서 높은 대출 순위를 보여준다. 최근의 2018년도 조사에서도 『은영전』은 공공 도서관에서 대출한 SF 시리즈물 가운데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여전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인기 때문에 2000년도에 서울문화사는 정식으로

자면 “곧 전투가 시작된다. 대단치도 않은 전투이지만 그런 만큼 이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기기 위한 계산은 해 두었으니 무리하지 말고 편하게 싸우길 바란다. 걸려 있는 건 기껏해야 국가의 존망 정도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비교하면 별 가치도 없는 것이야.....그럼 모두들, 슬슬 시작해볼까.(인용자 번역, 원문: 「もうすぐ戦いが始まる。ろくでもない戦いだか、それだけ勝たなくては意味がない。勝つための計算はしてあるから、無理をせず、気楽にやってくれ。かかっているものは、たかだか国家の存亡だ。個人の自由と権利に比べれば、たいした価値のあるものじゃない.....それでは、みんな、そろそろ始めるとしようか。」)와 같은데 최학준은 이를 “곧 전투에 들어간다. 어느 전투치고 쉬운 것이 있을까마는 전쟁이란 어떤 경우에도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 승산은 우리 쪽에 있다. 그러므로 너무 무리하지 말고 여유 있게 작전을 수행하기 바란다. 그럼 모두 자기 위치로 돌아가라!”(2-174)라고 번역했다. 즉, 자유분방하고 시니컬한 연설 내용을 장중하고 위엄 있게 변형시키고 그 과정에서 『은영전』에서 가장 유명한 문구인 “걸려 있는 건 기껏해야 국가의 존망 정도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비교하면 별 가치도 없는 것이야.”를 생략해버린 것이다. 최학준은 2권 후반부에 와서야 비로소 “도리아 전투 직전에 안은 전장병에게 이렇게 말했다. 국가의 흥망 따위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2-349)라는 대사를 번역해 간접회법으로 안 연설의 내용을 처음 독자들에게 전한다. 또한 2권 후반부에서 친구 키르히하이스가 죽은 직후에 라인하르트가 누나인 안네로제에게 키르히하이스를 사랑했다고 묻는 장면을 생략해 라인하르트가 누나와 친구에게 갖고 있던 복잡한 심경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 이외에도 다혈질인 비텐펠트 원수의 좌우명인 “남을 칭찬할 때는 큰 목소리로, 남을 욕할 때는 더욱 큰 목소리로 (인용자 번역, 「他人をほめるときは大きな声で、悪口をいうときはより大きな声で、田中芳樹, 『銀河英雄伝説 10- 落日篇』, 徳間書店, 1987, p.76.)”를 “남의 칭찬은 큰 목소리로, 남의 험담은 작은 목소리로.”(10-93)로 잘못 번역하는 등, 원작과 다른 내용이 곳곳에 보인다.

3) 1994년 6월부터 1997년 5월까지 3년간 KAIST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대출한 교양서적 순위에 해당한다.(지명훈, 「대전 / 충남과기원생들 「무협소설」 대출 1 위, 『동아일보』, 1997.9.22,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19970922/7285712/1> (검색 일자: 22.6.5.))

4) 2000년도에 『은영전』은 서울대에서 도서 대출 순위 3위에 올랐다고 한다. (이인철, 「무협지 즐겨 읽어요」...서울대 도서대출 절반이 소설류, 『동아일보』, 2001.05.19, 29면.)

로 판권을 사서 윤덕주 번역판을 출간했고 2011년도에는 디엔씨미디어에서 김완이 번역한 『은영전』이 출판되어 화제를 모았다.

이렇듯 『은영전』은 30여 년에 가깝게 한국에서 사랑을 받으며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외국의 장르소설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수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은 만큼 한국 사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되나 『은영전』에 관한 학술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많지 않은 선행연구들에서도 추상적이고 생경한 정치 이론과 관련지어 작품을 해석할 뿐, 한국 사회가 『은영전』을 어떻게 수용했는지 언급하는 학술 연구는 찾기 힘들다.<sup>5)</sup> 이런 상황에서는 『은영전』이 왜 1990년대에 한국 독자들을 사로잡았는지, 당시 유행하던 담론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한국 사회에서 『은영전』이 차지하는 위상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그렇다면 학술논문의 범위를 넘어 비평계에서는 『은영전』의 한국 수용양상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알아보자. 비평가들 가운데에는 『은영전』이 특정세대의 정치의식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다. 우선, 1983년생의 정치비평가 한윤형은 자신의 경험을 사례로 들며 『은영전』이 자기 세대에게 지니는 특별한 의미에 관해 서술한다. 한윤형은 「양 웬리가 최고시다?」<sup>6)</sup>(2013)라는 글에서 중학교 때 읽은 『은영전』은 “우리들의 고전(古典)”이었으며 “을지문고에서 해적판으로 나온 이 소설이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 사이에 태어나 1990년대에 사춘기를 보낸 독자들에게 미친 영향”이 상당했다고 진술한다. 특히 “양 웬리(『은영전』의 주인공·인용자)는 이들 또래의 어떤 이들에게 386세대 운동권에게 레닌이 실존했던 인물이었다는 것만큼이나 실존했던 인물이었다”고 말하며 자신

5) 예를 들어 강성환의 석사 논문에서는 『은영전』에 나타나는 전체주의, 민주주의, 국가주의를 논하고 있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은영전』을 수용했던 90년대 한국 사회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기술되어 있지 않다. (강성환, 『『銀河英雄傳説』 등장인물의 이데올로기』, 전남대 일어일문과 석사논문, 2009, 27-127면.)

6) 한윤형, 「양 웬리가 최고시다?」, 『월간잉어』, 2013,

<https://monthlyyingyeo.tistory.com/226?category=447179> (검색 일자: 22.6.5.)

또한 “양 웬리의 신도”였다고 고백한다.

만화 굿시니스트의 「굿시니스트관 〈은하영웅전설〉」(2012)에서도 한윤형과 유사한 문제의식이 드러난다.<sup>7)</sup> 굿시니스트는 『은영전』을 일컬어 “1990년대 그 어느 스토리텔링보다 어떤 특정 세대의 정치적 감수성 배양에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하며 90년대에 청소년기를 보낸 세대는 『은영전』 때문에 “리영희, 〈난쏘공〉을 읽은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거대담론 감각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굿시니스트는 『은영전』의 작품성은 높지 않으나 90년대 당시 “재미를 위한 텍스트”가 희소했기에 청소년들 사이에 인기가 있었다고 분석한다. 한윤형과 굿시니스트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청소년 시기 읽었던 『은영전』을 회상하며 당시의 독서 경험 때문에 86세대와 다른 정치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증언한다.<sup>8)</sup>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은 현재 5,60대에 해당하는 소위 86세대도 『은영전』을 열심히 읽었다는 점이다. 1958년생 전 국회의원 김성식은 2016년 4월 MBC 백분토론에 나와 다양한 의견과의 공존을 주장하며 “『은영전』 양 웬리 어록<sup>9)</sup>을 인용하고 1964년생 수학자 박형주는 2016년 『동아일보』 칼럼에서 수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은영전』 내용을 언급한다.<sup>10)</sup> 또한 1968년생 교사 권재원은 『경향신문』 칼럼에서

7) 굿시니스트, 「굿시니스트관 〈은하영웅전설〉」, 『시사 IN』 224, 2012,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80> (검색 일자: 22.6.5.)

8) 한윤형과 동갑인 정치비평가 노정태도 자신의 세대의 정치의식에 『은영전』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말한다. 노정태는 2021년 9월 10일자 페이스북에서 “말하자면 ‘은하영웅전설 세대’라는 게 있습니다. ‘무능한 민주주의보다 유능한 독재가 낫다’고 달달 외우고 있는, 30대에서 40대에 걸친 남자들입니다. 이들의 신념은 학교 교육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읽은 재미있는 소설에서 나왔죠. 그 소설의 이름은 〈은하영웅전설〉.”이라고 적고 있다. (노정태, 「은하영웅전설 세대와 윤 웬리의 비극」, 『페이스북』, 2021.,

<https://www.facebook.com/jeongtae.roh/posts/4232706530111701> (검색 일자: 22.6.5.)

9) 2016년 4월 20일 김성식의 트위터, “어젯밤 mbc 백분토론 잘 마쳤습니다. 부족한 토론인데 참 못 주무신 분들께 미안합니다.^^ 어제 『은영전』 양 웬리 어록과 pgr21의 글 하나를 인용했더니 관심보이시는 분이 많네요.” 참조. (<https://twitter.com/okkimss/status/722608742999568384> (검색 일자: 22.6.5.))

“내 인생의 책”으로 『은영전』을 꼽고 “나는 아직도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할 때 ‘양 웬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곤 한다.”라고 고백한다.<sup>11)</sup> 그뿐만 아니라 2018년 조선일보에서는 세계 증권 시장을 분석하면서 “이제는 고전 취급을 받는 다나카 요시키의 1988년 작 ‘은하영웅전설’을 길게 언급하고<sup>12)</sup> 2013년 MBC 라디오 스타에서는 실재하는 철학자의 명언처럼 『은영전』의 문구를 인용하고 있다. 이처럼 대중을 상대하는 매스 미디어에서는 정치뿐만 아니라 과학, 교육, 경제, 예능 각 분야에서 『은영전』을 자주 인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은영전』의 내용이 특정 세대에게만 설득력을 지닌다고 말하기 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폭넓게 통용된다고 진단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

이처럼 『은영전』은 오늘날 다양한 연령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렇다면 90년대에는 어떠한 독자들이 『은영전』을 찾았는지 당시의 신문 기사나 기록들을 알아보겠다. 1992년 1월 31일 『매일경제신문』 기사에서는 1월의 베스트셀러 4위에 91년 12월에 막 출시된 다나카 요시키의 은하영웅전설이 올랐다고 보도했다.<sup>13)</sup> 또한 1992년 3월 19일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문학평론가 임현영은 강연회에서 “다나카 요시키의 『은하영웅전설』이 대형서점 추리·SF소설부문 1위를 차지하고 있(다)”<sup>14)</sup>는 사실을 지

- 
- 10) 박형주, 「만사 인공지능의 과유불급」, 『동아일보』, 2016.8.30.,  
[https://www.donga.com/news/List/Series\\_70040100000019/article/all/20160830/80032045/1?comm](https://www.donga.com/news/List/Series_70040100000019/article/all/20160830/80032045/1?comm)  
 (검색 일자: 22.6.5.)
- 11) 권재원, 「권재원의 내 인생의 책⑤ 은하영웅전설, 다나카 요시키」, 『경향신문』, 2016.11.24.,  
[https://m.khan.co.kr/culture/book/article/201611242244005?fbclid=IwAR2X9E6Ff8mDfSaoQJYCK6ofxQl6eTAhrDCN6mt\\_7D\\_3vQSpgyFmEfev5UU#c2b](https://m.khan.co.kr/culture/book/article/201611242244005?fbclid=IwAR2X9E6Ff8mDfSaoQJYCK6ofxQl6eTAhrDCN6mt_7D_3vQSpgyFmEfev5UU#c2b) (검색 일자: 22.6.5.)
- 12) 안재만, 「투자노트 돌아온 황제들의 시대」, 『조선일보』, 2018.3.7.,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07/2018030700401.html?fbclid=IwAR3-ENVyNA\\_cMzdwqdEKlFfpxbdfZykSc6KateN2MiX-yMyoQ1F6FZhWE](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07/2018030700401.html?fbclid=IwAR3-ENVyNA_cMzdwqdEKlFfpxbdfZykSc6KateN2MiX-yMyoQ1F6FZhWE) (검색 일자: 22.6.5.)
- 13) 1992년 1월 31일자 매일경제신문 22면에서 을지서적이 집계한 순위 참조. 같은 시기, 종로서적이 집계한 순위와는 차이를 보인다.
- 14) 이경철, 「일 70년대 들어 한국문학에 관심」 | 「8·15이후 일본에서의 수용…」 강연회, 『중앙일보』, 1992.3.19., 14면.

적하며 일본 대중문학이 급속도로 국내에 침투하는 것을 경계했다. 국내 유명 평론가가 학술 강연회에서 주요 사례로 인용할 정도로 『은영전』은 당시 큰 상업적 성공을 거둔 것이다. 『은영전』은 발매되자마자 곧바로 중쇄, 삼쇄를 찍게 되는데<sup>15)</sup> 당시 10대 초반의 청소년들의 구매력만으로 단기간에 총 14권에 해당하는 장편 소설이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90년대 『은영전』을 읽은 독자 가운데에는 경제력을 지닌 이들도 많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여기서 90년대 초반에 『은영전』을 출판했던 을지서적이라는 출판사에 관해 알아보자. 당시 『은영전』의 신문 광고에서는 을지서적에 관해 “2호선 을지로입구역 1,000평의 초대형 서점”<sup>16)</sup>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1992년 1월 31일 『매일경제신문』 23면에서는 개업 5주년을 맞은 을지서적을 대서특필하고 이에 관해 「직장인들이 단골손님」이라는 특집 기사를 내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을지서적은 “학원가 소비거리인 종로통”이 아니라 “원자재를 취급하는 특수거리”에 위치해 있어 “교보문고와 종로서적이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것과 달리 직장인들이 주고객층”이다. 그러기에 “직장인 코너”를 따로 설치하는 등, “직장인서비스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서점”이라고 소개되고 있다. 특히 기사에서는 “직장인들에게 자랑하는 을지서적의 주요코너”로 “신속한 주문 보급을 내세우는 의서및 일본도서코너”를 소개하고 있다. 이 기사 내용으로부터 을지서적이 학생보다 직장인들의 취향을 반영했으며 당시 직장인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던 일본도서의 출판 사정에도 민감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은영전』의 출간도 이러한 을지서적의 사정과 연관성이 깊다고 볼 수 있다. 92년 2월 23일 『조선일보』 13면에 실린 『은영전』의 단독 광고를 보면 일본에서 450만 부가 팔린 책으로 『은영전』을 소개하며 “지

15) 예를 들어, 1991년 8월 10일에 출간된 『은영전』 2권은 91년 10월 20일에 중쇄, 12월 5일에 3쇄를 찍고 2년이 지난 1993년 8월 15일에는 7쇄를 찍게 되었다.

16) 1992년 2월 23일자 『조선일보』 13면 전단광고.

모·야심·용기.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는 신비의 힘이 이곳에 있습니다. 부하직원을 대하기 부끄러운 중견간부, 뛰어난 용병술을 갖추고 싶은 군인, 새로운 사업에의 두려움에 고민하는 사업가. 이제는 모두 용기를 가지십시오!”와 같은 광고 문구를 적고 있다. 직장인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은 을지서적은 중견간부나 군인, 사업가 등이 교훈과 재미를 얻을 수 있는 작품으로 일본의 『은영전』을 번역하고 출판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당시 청소년들만 90년대에 『은영전』을 찾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윤형은 “우리끼리만 알던 그 양 웬리”라고 표현하지만 90년대 『은영전』의 독자는 당시 청소년이었던 세대 이외에도 많았던 것이다. 소위 86세대에 해당하는 직장인을 포함해 다양한 계층이 『은영전』을 구매했기에 단기간 내에 『은영전』의 발매 부수가 올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염두에 둔다면 특정세대에 한정지어 『은영전』의 한국 수용 양상을 분석하는 것의 문제점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 『은영전』은 90년대 청소년들의 오락문화로서만 해석되는 경향이 있어 당시 한국 사회에서 『은영전』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종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은영전』은 매우 폭넓은 독자층을 자랑하고 있어 90년대 전체 맥락 가운데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정세대의 독서경험만 전경화한다면 『은영전』의 정확한 위상을 알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베스트셀러의 관점에서 『은영전』을 고찰하기로 한다. 현재 베스트셀러는 대중의 독서 문화를 알려주는 지표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천정환에 따르면, 베스트셀러에는 출판자본주의와 정치 이데올로기 등, 독서 행위 밖의 “사회의 잡다한 것들”이 반영되어 나타난다.<sup>17)</sup> 그렇기에 베스트셀러는 “어떤 사회화된 욕망구조의 ‘단면’을 보여주는 도구”인 것이다. 다시 말해, 베스트셀러는 특정 집단을 넘어 사회 전체와 긴

17) 천정환, 「한국 독서사 서술 방법론(1) -독서사의 주체와 베스트셀러 문화를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43, 2016, 31-32면.



밀하게 연동되어 있으며 변화하는 대중의 정동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베스트셀러의 하나로서 본 논문은 『은영전』을 읽으며 여기에는 어떤 대중의 욕망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베스트셀러는 당시의 주요 담론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전체 담론 지형을 끊임없이 변형시킨다. 따라서 베스트셀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작품만이 아니라 주변 담론들이나 여타의 베스트셀러들과 맺는 관계에 주목해야한다. 특히 같은 장르나 유형의 베스트셀러를 서로 비교하면 개별 작품들의 역사적 의의를 밝히고 사회 전체의 담론 구조도 조망할 수 있다.<sup>18)</sup>

그러기에 90년대 한국에서 『은영전』이 차지하는 위치를 찾고자 비슷한 유형의 베스트셀러들과 『은영전』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sup>19)</sup> 본 논문은 『은영전』과 비교할 90년대 베스트셀러로서 『상실의 시대』(1989년 번역)와 『영원한 제국』(1993)에 주목한다. 두 작품은 『은영전』과 비슷한 시기에 출간되어 인기를 얻었다. 그뿐만 아니라 『상실의 시대』는 일본문학을 번역했다는 점에서, 『영원한 제국』은 새로운 영웅서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은영전』과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다. 이를 조사해보면 90년대의 독자들에게 『은영전』은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90년대 한국에서 『은영전』이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초점을 맞춘 만큼 일본에서 『은영전』이 탄생한 배경이나 일본 문학계에 『은영

18) 천정환도 유형론이나 계보학을 통해 개별적인 베스트셀러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천정환, 앞의 논문, 35-36면.)

19) 90년대를 대표하는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은영전』과 다른 문학 작품의 관계를 논하는 비평이나 연구는 찾기 어렵다. 다만 “재미를 위한 텍스트가 무협지밖에 없던 시절에 『은영전』의 우주대전쟁, 신묘한 병법, 세상은 썩었어 드립 등등에 청소년들은 홀랑 홀랑버렸습니다.”과 같은 굿시니스트의 글처럼 당시 청소년들이 보던 무협지에 빗대어 『은영전』의 인기를 언급하는 경우는 있다. (굿시니스트, 「굿시니스트관 〈은하영웅전설〉」, 『시사 IN』 224, 2012,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80> (검색 일자: 22.6.5.)) 그러나 당시 청소년들이 무협지에 싫증이 나서 『은영전』을 보게 되었다는 사례들만 나열할 뿐, 본격적으로 무협지와 『은영전』을 비교하거나 해당 독자층을 조사·검증하는 연구는 부재하다.

전』이 끼친 영향에 관해서는 따로 논하지 않겠다.<sup>20)</sup> 90년대 한국의 베스트셀러로서 『은영전』을 읽는 것을 논문의 목적으로 삼는다.

## 2. 『상실의 시대』와 『은영전』의 해체주의

### 1) 거대담론의 해체와 『상실의 시대』

본 장에서는 90년대 한국에서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일으켰던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와 『은영전』을 비교하겠다. 이를 통해 당시 한국의 독자들이 어떤 메시지에 관심이 많았고 『상실의 시대』와 『은영전』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분석할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90년대 한국의 출판계 정황에 대해 알아보자. 90년대 문학 출판의 특징으로 ‘해체주의’나 ‘거대담론의 상실’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다. 예를 들면 『출판저널』(1999)의 〈90년대 특집〉<sup>21)</sup>에서 『실천문학』 발행인, 김영현은 “90년대 초반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하면 해체겠죠. 권위에 대한 해체, 중심에 대한 해체, 지배권력에 대한 해체, 그 저항에 대한 해체.”라고 발언했고 문학과지성사 주간, 채호기는 “90년대 문학의 특징으로 거대담론이 붕괴되면서 다양한 문학적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이라고 분석하고 창작과비평사 편집국장 김이구는 “80년대는 이념 혹은 거대담론의 시대고 90년대는 해체나 포스트모더니즘이 확산된 시대”라고 정리했다. 또한 그러한 시대적 현상으로

20) 일본에서도 『은영전』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적어 일본의 사회·역사적 맥락에서 『은영전』을 해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지면 관계상 이 주제를 다루지 못함을 미리 밝힌다.

21) 김영현·김이구·이문제·채호기, 「거대담론이 사라진 자리에 상업성의 바람이 -90년대 문학 출판의 지형도를 풀어본다」, 『출판저널』 253, 1999, 47면.

서 『문학동네』 주간, 이문재는 “하루키로 대표되는 일본문학의 가벼움”을 들었고 김이구도 “일본문학을 흡수한다거나 대중문화를 받아들인다거나 하는 발랄한 측면”이 90년대 문학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본다면 90년대 국내 출판계를 대표하는 작가로 무라카미 하루키에 주목할 수 있다. 특히 1989년 국내에 출간된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sup>22)</sup>는 90년대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90년대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로 자리 잡는다. 국내에서는 『상실의 시대』가 계기가 되어 ‘하루키 현상’이나 ‘하루키즘’이란 말까지도 유행하며 하루키의 다른 작품들도 전부 번역되기에 이른다.

이처럼 하루키 소설이 한국에서 인기를 얻은 이유에 대해 선행 연구에서는 90년대 당시의 상황을 지적한다. 87년의 6.29 선언과 91년 소련 붕괴 이후 한국에서는 민주화 운동이나 정치 이데올로기가 점차 영향력을 잃게 되었는데 이러한 시대 배경 때문에 하루키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김영찬은 “특히 『상실의 시대』가 한국에 번역된 시점이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이 결정적으로 가시화되던 1989년이라는 사실은 징후적”이라고 지적하며 90년대에는 학생운동의 정치적 에너지를 대신해 ‘집단적 이념과 거대담론에 대한 회의와 환멸’이 퍼졌다고 분석한다.<sup>23)</sup> 게다가 “오랜 권위주의와 집단주의에 의해 억눌려왔던 개인의 욕망”이 분출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시대 변화를 반영한 작품으로 하루키 소설이 각광을 받았다고 한다.<sup>24)</sup> 또한 김홍중은 “90년대 한국 사회가 체험하게 되는 거대

22) 원제는 『노르웨이의 숲(ノルウェイの森)』(1987)이다. 이 책의 국내 출판 정황에 대해 한기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한국에서 저작권이 확보되지 않았던 1987년 출판사 세 곳에서 원제인 『노르웨이의 숲』으로 책을 펴냈지만 빛을 보지 못하다가, 1989년 문학사상사가 『상실의 시대』로 제목을 바꿔 펴낸 다음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념이 사라진 시대의 분위기에 맞게 제목을 바꾼 것이 주효했다.” (한기호, 『베스트셀러 30년』, 교보문고, 299면.) 본 논문에서는 90년대에 가장 많이 읽힌 번역본인 무라카미 하루키, 유유정, 『상실의 시대』, 문학사상, 1989.을 분석하고 인용한다.

23) 김영찬, 「무라카미 하루키, 사라지는 매개자와 1990년대 한국문학」, 『한국학논집』 72, 8면.

24) 김영찬, 앞의 논문, 9면.

서사의 조락, 이데올로기의 종언, 역사의 종말, 포스트모던의 시작과 같은 사회변동의 충격파가 우리에게서 일종의 정신적 재난으로 체험되었고, 그 재난의 의미와 그에 대한 가능한 대처법을 하루키의 소설이 제공해주었다”<sup>25)</sup>고 말한다. 즉, 하루키 소설은 거대담론과 정치이념이 해체한 시대의 정동을 표현했기에 90년대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게다가 선행연구에서는 힘을 잃어가는 거대담론을 대신하여 하루키 소설이 개인의 내면이나 취향을 전경화했다고 주장한다. 김춘미는 “하루키 문학에는 거대담론이 아닌 개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개인적 윤리에 대한 물음이 있었고, 일상의 발견이 있었으며 개인의 고유한 경험, 자발적 기억에 의한 감각이라는 유니크성”이 있다고 말하며 ‘윤리, 일상, 경험, 감각과 같은 개인의 영역을 문학으로 구축한 작가로서 하루키를 평가한다. 특히 남진우는 하루키 소설의 자폐적인 성격을 지적하며 이는 댄디즘과 오컬티즘으로 표현된다고 비평한다.<sup>26)</sup> 댄디즘이란 “삶으로부터 후퇴하여 내면의 밀실에서 안락한 자족감을 누리며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유래한 정신적 귀족주의이며 오컬티즘이란 내면의 심연에서 ‘복수의 나’를 만나는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선행연구에서 주장하듯, 개인의 내면에 침전하는 내용은 하루키 소설에 많이 나타난다. 다만, 이는 현실의 체제와 가치를 불신하고 기피하는 심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주위 세계를 부정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정치적 허무주의만으로 하루키 소설을 해석하기는 어렵다. 하루키 소설 가운데 90년대에 큰 인기를 얻었던 『상실의 시대』를 예로 들어보자.

몸속의 무엇인가가 떨어져나가고 그 자리를 메워줄 것도 없는 채, 그

25)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432면.

26) 남진우, 「오르페우스의 귀환 -무라카미 하루키, 댄디즘과 오컬티즘 사이에서 방향하는 청춘-」, 『문학동네』 11, 1997, 355-380면.

것은 순수한 공동空洞으로 방치되어 있었다. 몸은 부자연스럽게 가벼웠고 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중략)

오월 말 대학은 동맹 휴학에 들어갔다. 그들은 ‘대학 해체’를 외치고 있었다. 좋다. 해체할 테면 하라고 나는 생각했다. 해체해서 산산조각 내어 발로 짓밟아 가루로 만들어버려라. 전혀 상관없다. 그럼 나도 훌기분해질 것이고, 뒷일이야 혼자서 어떻게든 감당할 것이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줄 수도 있어. 재빨리 해치우라구.<sup>27)</sup>

여기서 “대학”은 기존의 권위와 제도, 공동체를 상징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상실과 허무로 “공동”이 된 내면을 지닌 주인공은 “대학”이 해체되는 것을 내심 바라고 있다. 적극적으로 학생 운동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체해서 산산조각 내어 발로 짓밟아 가루로 만들어버려라”라고 외치며 자신의 심상풍경처럼 세상이 “공동”으로 변모하길 소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맹 휴학이 허망하게 실패로 돌아가고 “대학은 아무 손상 없이 멀쩡했다. 도서관의 책도 약탈되지 않았고, 교수 연구실도 파괴되지 않았으며, 학생과 건물도 불에 타 무너지지 않았다. 이 녀석들 도대체 뭘 한 건가 싶어서, 나는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sup>28)</sup>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주인공은 학생 운동에 깊이 실망하게 된다. 더욱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운동권 학생들이 학점을 따기 위해 학교에 열심히 출석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학교에서 혼자 지내기로 결심한다. 이와 같이 『상실의 시대』의 주인공은 자신의 내면처럼 바깥세상이 붕괴되고 해체되기를 소망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다시 한 번 좌절한다. 따라서 『상실의 시대』의 밑바닥에 흐르는 정서는 기존의 세계를 부정하고 전복시키고자 하는 욕구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중현은 주인공들이 기존의 통념과 규율을 깨고 자유롭게 사고하고 일탈했기에 『상실

27) 무라카미 하루키, 유유정, 『상실의 시대』, 문학사상, 1989, 71면.

28) 무라카미 하루키, 앞의 책, 79면.

의 시대』가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다고 비평한다.<sup>29)</sup> 자유로운 주인공들을 보며 90년대 독자들은 “짓누르던 도덕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복음”을 느꼈을 것으로 정중현은 추론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염두에 둔다면 90년대에 하루키 문학이 반향을 일으킨 이유 중 하나로 해체주의적 성향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 2) ‘신념’에 대한 혐오와 『은영전』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은영전』에서도 거대담론에 대한 불신과 기존 체제에 대한 적대감이 뚜렷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사실 『은영전』의 작가 다나카 요시키는 1952년생으로 1949년생인 무라카미 하루키와 별로 차이 나지 않는다. 또한 1982년부터 출간된 『은영전』의 본편 10권은 1987년에 완결되었는데 이는 1987년에 일본에서 『노르웨이의 숲(ノルウェイの森)』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된 『상실의 시대』와 시기가 겹친다. 일반적으로 일본은 197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점차 거대담론이 해체되기 시작한다고 보고 있다.<sup>30)</sup> 그래서 거대담론에 대한 강한 회의를 그리는 작품들이 80년대에 많이 등장했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상실의 시대』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시기에 출판된 『은영전』도 『상실의 시대』와 유사한 성향을 지니고 있다.<sup>31)</sup> 예를 들면, 『은영전』은 신념

29) 정중현, 「뒤늦게 도착한 '68혁명'-1990년대 한국문학과 '무라카미 하루키', '밀란 쿤데라', '다이 호우잉'의 번역 소설-», 『한국학연구』 58, 2020, 676-678면.

30) 거대담론의 실추를 상징하는 1970년대 주요 사건을 열거하자면 탈산업사회의 시작을 알리는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 개최, 60년대 학생운동의 몰락을 가져온 1972년 연합적군의 아사마 산장 사건, 고도경제성장의 종식을 선고하는 1973년 오일 쇼크 등이 있다. 여기에 관해선 大澤真幸, 『虚構の時代の果て -オウムと世界最終戦争』, 筑摩書房, 1996, pp.88-114.을 참조할 것.

31) 보통 순문학으로 분류되는 하루키 문학과 대중문학인 『은영전』을 같이 비교하는 것에 위화감을 느끼는 연구자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1987년에 완결된 『은영전』과 『상실의 시대』는 거의 동시에 일본 대중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기에 공통 요소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더

을 갖는 행위 자체를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은영전』에서는 신념의 대상이 정치이념이든 신, 종교이든 국가, 조직이든 관계없이 굳건한 신념을 갖는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신념에 관해 서술한 『은영전』의 내용을 나열해보겠다.

a. 대체로 신념이란 허점이 많은 자가 자기의 전매 특허처럼 외우는 말로서, 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으로 족한 것이지 입에 올릴 가치는 없는 것이다. (2-250)

b. 신념을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돈을 위해 살인하는 것보다 더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돈은 만민에게 공통의 가치를 지니지만 신념의 가치는 당사자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6-103)

c. 하지만 정의와 신념이 이 세상에서 가장 피를 즐긴다는 것을 그들은 전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최고 지도자가 주장하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그 신념을 만족시킬 때까지 무수한 병사가 산 채로 바베큐가 되고 팔뚝과 다리가 잘리는 병신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실감했던 것이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정의나 신념을 포기한다면 병사들은 자기 몸속에서 비어져 나온 피묻은 내장을 바라보며 공포와 고통 속에서 죽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과 같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전

---

육이 일본 선행연구에서는 하루키 문학과 대중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빈번하게 논의되고 있다. 우노 쓰네히로에 따르면 하루키 문학은 더 이상 순문학이라는 틀 안에서 파악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애니메이션이나 게임과 같은 팝 컬처와 더불어 논할 때 그 진가를 파악할 수 있다. (宇野常寛, 『リトル・ピープルの時代』, 幻冬舎, 2015, pp.43-44.) 아즈마 히로키도 자연주의적 리얼리즘과 만화·애니메이션적인 리얼리즘의 경계를 허무는 문학적 시도의 기원이 80년대 하루키 문학에 있었다고 보고 있다. (東浩紀, 『ゲーム的リアリズムの誕生-動物化するポストモダン2』, 講談社, 2007, pp.288-289.) 일반적으로 하루키 문학은 장르소설이나 팝 컬처의 영향을 받아 탄생했으며, 또 동시에 애니메이션이나 라이트노벨과 같은 서브 컬처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쟁터에서 멀리 떨어진, 즉 안전한 장소에 머물고 있는 한 권력자들은 정의와 신념이 인명보다 훨씬 귀중한 것이라는 주장을 결코 굽히지 않을 것이다. (5-262)

여기서 “신념”이란 좁게는 정치가의 프로파간다에서, 넓게는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논리나 개개인의 절대적 믿음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은영전』은 특정 개인의 절대적 신념이 사회에 관철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은영전』에 따르면 아무리 훌륭한 신념이라 하더라도 “신념의 가치는 당사자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며 이는 “입에 올릴 가치는 없는 것”이다. 만약 권력자의 신념에 따라 사회가 움직인다면 수많은 공포와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 전쟁의 잔혹성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은영전』은 인명보다 귀중한 신념은 없다고 거듭 강조한다.

이런 방식으로 『은영전』은 신념을 인식하고 있기에 애국심이나 신앙에 기초한 공동체, 국가와 종교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 예를 들면 『은영전』에서는 “국가의 흥망 따위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2-349)라든지 “국가란 인간의 광기를 정당화시키는 하나의 방편인지도 모른다.”(3-167),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창조물인 주권국가”(6-14), “인류가 주권국가라는 마약에 오염되고 만 이상 국가가 개인을 희생시키지 않는 사회체제는 존재하지 못할 수도 있다”(6-310)라고 말하며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창조물”이자 “마약”으로서 국가를 정의하고 있다. 또한 종교에 관해선 “신이러는, 피상망측한 것을 생각해낸 인간은 역사상 최대의 사기꾼들입니다”(2-242), “종교 그 자체를 부정할 마음은 없지만 종교조직이 권력에 욕심을 부린다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인간의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지배하는 최악의 전체주의일 것이다. 다양한 가치관이나 취미 등은 일체 배제되고, 절대 유일의 존재만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인간에게 허용될 것이다”(6-126)라고



비판한다. 이와 같이 『은영전』은 ‘국가’와 ‘개인’, 혹은 ‘종교=절대유일의 존재’와 ‘다양한 가치관이나 취미’를 끊임없이 대립시키면서 전자를 부정하고 후자를 긍정한다.

이와 같은 『은영전』의 주제의식은 주인공인 안 웬리를 통해 형상화된다. “신념이란 말에 늘 저항을 느끼고 있는 안”(5-341)으로 묘사되는 주인공, 안 웬리는 권력을 분산시키는 일에 일생을 건다. “절대 유일의 신이나 절대 유일의 대의명분을 강요당하기보다는 크고작은 집단들이 내세우는, 웅졸하나마 다양한 명분에 의해 상처를 입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다”(7-136)라고 믿는 안 웬리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독재정에 대항해 최악의 형태의 민주주의를 옹호한다. 그렇다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신념을 갖고 이를 절대시하는 것도 아니다. 안은 “다양한 정치적 가치관의 공존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정수”(7-274)라며 민주주의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생각에 반대하고 독재정치나 제국주의와 공존하기를 소망한다.<sup>32)</sup> 이렇듯 안 웬리는 모든 절대적 가치에 강한 반감을 보이며 다양성을 추구한다.

이러한 안 웬리에 관해 한윤형은 “타인의 신념을 혐오하는 그의 사상이 정치보다는 탈정치에 가까웠다”<sup>33)</sup>고 평가한다. 한윤형에 따르면 민주주의란 “제각각의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바탕을 두고 있기에 신념 자체를 거부하는 안 웬리는 민주적이지도 정치적이지도 않다. 그러나 이념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현 체제를 상대화하는 것도 일종의 정치적 행위라고 한다면 탈정치

32) 안 웬리의 전제주의에 관한 입장은 “안은 개인적으로 전제주의를 전적으로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거부하고 싸움에 앞장을 섰던 것이다.”(8-45)라는 말에 압축적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성격을 지니기에 안 웬리는 절대군주를 쓰러뜨릴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둔다. 안 웬리는 민주주의 체제의 완벽한 승리보다는 다양한 체제가 공존하는 편을 선택한 것이다.

33) 한윤형, 『양 웬리가 최고시다!』, 『월간잉어』, 2013,

<https://monthlyingyeo.tistory.com/226?category=447179> (검색 일자: 22.8.10.)

의 틀만으로 안 웬리를 재단하기는 어렵다. “하나의 정의가 있다면 그 역방향에 그와 동등한 또 하나의 정의가 반드시 존재한다” (5-340)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일생동안 사투를 펼치는 안 웬리는 상대주의자 혹은 해체주의자의 얼굴을 지니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신념이란 말에 늘 저항을 느끼고 있는 안”과 “공동空洞”의 내면을 안고 “대학 해체”에 동조하는 『상실의 시대』 주인공은 많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일단, 양쪽 모두 어떠한 신념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주위 사람들이 맹신하는 가치들에 대해서도 줄곧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이 90년대 한국의 독자들을 매료시켰다고 생각한다. 『상실의 시대』와 『은영전』이 불신한 것은 기성세대의 부패한 권력만이 아니었다. 『상실의 시대』에서는 정의롭다고 여기던 학생운동의 위선적인 측면을 폭로하고 『은영전』은 절대적인 가치로 모두가 신성시하던 민주주의를 상대화한다.<sup>34)</sup> 이러한 모습으로부터 공인된 권위를 전복시키는 신선함과 해방감을 느끼던 독자는 결코 적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상실의 시대』의 주인공과 안 웬리는 90년대 독자들이 공감할 만한 정치적 입장을 전경화하고 있다. 『상실의 시대』의 주인공은 기성세대와 학생운동 세대 사이에 끼어 어디에도 동조하지 않은 채 모호한 태도로 일관한다. 『은영전』의 안 웬리도 양쪽으로 대립하던 정치 체제들을 상대화하며 모순적인 언동을 보이기에 “안 웬리라고 하는 인물은 무수한 모순으로 구성된 유기체”(7-60)라고 묘사된다. 이러한 『상실의 시대』의 주인공과 안 웬리는 모두로부터 거리를 유지한 채 사적인 취미에 몰두한다.

34) 안 웬리는 절대군주에 맞서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면서도 민주주의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끊임없이 흔들린다. 『은영전』에서 안 웬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우리들에게 주권 따위가 무슨 필요 있겠는가? 참정권, 그까짓 게 무슨 상관인가? 현재 황제가 선정을 베풀고 있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무슨 말라비틀어진 민주주의냐? 황제에게 전권을 맡겨두자. 정치체도가 국민의 행복을 실현시켜 주는 수단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진 지금 새로 옷을 갈아입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8-66) 이러한 안 웬리의 질문에 접한 독자들은 민주주의의 한계와 결점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갖는다.

“세상에 아직 잘 적응을 못하(는)” 『상실의 시대』의 주인공이 재즈와 와인을 즐기며 미국 소설책을 읽으며 소일할 때, “평소의 대인관계에는 숫기가 없고 지혜롭지도 못했다”(8-194)고 일컬어지는 안 웬리는 브랜드를 넣은 홍차를 마시며 남이 거들떠도 안 보는 역사서에 빠져 산다.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작품 속 등장인물들은 국가 정치나 종교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의 영역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90년대 한국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실제로 주인공들의 행동은 90년대 젊은이들에게 반향을 일으켜 재즈와 와인, 홍차 등을 유행시키기도 했다.<sup>35)</sup>

이렇듯 『상실의 시대』와 『은영전』은 90년대 거대담론의 종언, 해체주의와 개인주의의 발흥에 상응하는 내용을 지녔기에 한국에서 큰 인기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주제의식은 매우 유사하지만 이를 표현하는 방식은 서로 달랐다. 『상실의 시대』가 주인공의 연애사와 대학교 생활을 묘사하며 “공동空洞”의 심정을 형상화했다고 한다면 『은영전』은 은하계의 역사를 서사하며 절대적인 신념에 대한 회의를 드러낸다. 그렇다면 『은영전』의 서술 형식의 특징은 무엇일까. 또한 90년대 한국의 문맥에서 『은영전』이 펼치는 가상의 역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관해선 다음 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35) 하루키 문학 때문에 재즈와 와인에 입문한 이가 많듯이 『은영전』의 영향으로 홍차를 즐기게 된 이들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유명한 홍차전문점인 ‘티앙팡’의 사장인 진수수는 은하영웅전설을 읽고 “주인공 양 웬리처럼 가장 맛있는 홍차를 먹고 싶은 마음에 직접 홍차 잎을 구하기 시작(해)” 홍차 관련 자격증을 따고 가게를 열게 되었다고 한다. ([Cover Story] 진수수 티앙팡 사장, 『매일경제』, 2005.11.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05/11/404645/?fbclid=IwAR3CHANge9vgB9qkrPVOIDZWw7NNOlvhk8lgZGv6q6lr9r\\_DeUNwxwhvXI](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05/11/404645/?fbclid=IwAR3CHANge9vgB9qkrPVOIDZWw7NNOlvhk8lgZGv6q6lr9r_DeUNwxwhvXI) (검색 일자: 22.8.10.)) 또한 “건강과 미용을 위해 식후 한 잔의 홍차.”라는 안 웬리의 대사는 인터넷의 밈으로 유행해 한국의 게임에도 자주 인용되고 있다.

### 3. 『영원한 제국』과 『은영전』의 역사 서술 형식

#### 1) 『영원한 제국』에 나타나는 영웅서사의 특징

『은영전』의 서술 방식을 분석하기에 앞서 9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유행한 영웅서사에 관해 알아보자. 90년대 초반의 베스트셀러를 보게 되면 위인이나 영웅을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한 서적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대표적 작품을 뽑자면 이은성 『소설 동의보감』(1990), 이재운 『소설 토정비결』(1991), 황인경 『소설 목민심서』(1992)과 같은 역사인물 소설이나 조선시대 정조를 최고의 명군으로 그린 이인화의 『영원한 제국』(1993) 등이 있다. 1993년에 출간되어 1년 만에 300만 부가 팔린 김진명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박정희나 이회소와 같은 카리스마적인 인물에 대한 동경을 그리고 있어 영웅서사를 희구하는 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90년대 중후반까지 시야를 넓힌다면 그 사례는 더욱 늘어난다. 예를 들어, 카이사르와 같은 영웅들의 이야기로 로마의 역사를 재구성한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시리즈(1995-2007)와 람세스 2세의 일대기를 그린 크리스티앙 자크의 『람세스』(1997) 등도 영웅서사문학으로서 인기를 누렸다고 말할 수 있다.

“역사를 오락화했다” 혹은 “역사를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영웅서사는 90년대에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는 70-80년대에 유행한 대하역사소설들과는 대조적인 성격을 보이기에 90년대의 특징이라 부를 수 있다. 과거의 대하역사소설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자면, 이주형은 70-80년대에 『장길산』, 『태백산맥』, 『객주』 등의 “민중지향적 대장편 역사소설”이 인기를 끌었으며 작가들은 “민중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민중사적 관점에서 역사를 보며 작품을 쓰려 했다”고 주장한다.<sup>36)</sup> 그 배경에는

36) 이주형, 「한국역사소설의 성취와 한계」, 『현대 한국문학 100년』, 민음사, 1999, 184면.

10월 유신과 신군부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의식의 증대와 “민족, 민주, 민중 개념의 이론화·실천화”가 있었다.<sup>37)</sup>

그러나 90년대에 들어 거대담론이 구심력을 잃게 되면서 “민중지향적 대장편 역사소설”을 대신해 역사 속 위인에 초점을 맞추는 영웅서사가 유행하기 시작한다. 사실 근대 역사소설이 정립된 1920, 30년대부터 구국의 영웅이나 제왕을 다룬 작품들은 인기를 얻었다. 그런데 90년대의 영웅서사는 그 주제의식과 기법이 과거와 다르기에 자세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 특징을 살피기 위해 본 논문은 『영원한 제국』<sup>38)</sup>에 주목한다.

『영원한 제국』은 출간한 지 2년 만에 100만 부 이상 팔렸던, 90년대 초반을 대표하는 베스트셀러였다. 작품은 1992년에 고전문학 전공자인 ‘나’가 정조 시대의 고서를 발견해 그 내용을 소개하는 형식을 지닌다. 고서에 따르면, 규장각의 이인몽은 이상적인 왕도정치를 추구하는 남인에 속해 정조에 충성을 다하지만 왕권을 견제하는 노론의 음모에 휘말려 뜻을 펼치지 못한다. 그 과정에서 “천 년에 한 번 만나기 어려운 성군”인 정조도 석연치 못한 최후를 맞이하고 개혁 운동도 중간에서 좌절된다.

이러한 내용의 『영원한 제국』이 발표되자 작가 이문열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조선일보에 기고한 서평에서 이문열은 『영원한 제국』의 주제가 신선하다며 “되뇌기조차 신물이 나는 사색당쟁”을 “세계관과 세계관의 충돌”로서 재해석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sup>39)</sup> 이문열에 따르면, 『영원한 제국』은 왕권을 견제하는 노론과 근왕주의자인 남인 가운데 어느

37) 이주형, 앞의 논문, 185면. 박유희도 『토지』, 『객주』, 『장길산』, 『태백산맥』 등의 대하역사소설이 인기를 얻은 이유로 “사회과학 서적의 출판, 그리고 내발적 근대화론에 입각한 ‘아래로부터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꼽고 있다. (박유희, 「총론」,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 2: 역사허구물』, 이론과실천, 2009, 33면)

38) 본 논문은 이인화, 『영원한 제국』, 세계사, 1993.의 초판본을 분석하고 인용한다. 예를 들어 『영원한 제국』의 357면을 인용할 때에는 (『제국』, 357)이라고 표기한다.

39) 이문열, 「여름 밤 꼬박 새운 즐거운 충격 -수수께끼 풀듯 「정조독살설」 치밀한 재구성」, 『조선일보』, 1993.7.31., 11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역사를 서술한다. 위와 같은 이문열의 평가대로 『영원한 제국』이 “세계관과 세계관의 충돌”을 서술하고 있다면 『영원한 제국』은 자칫 이분법적 선악구도에 빠지기 쉬운 영웅서사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영원한 제국』은 혼성모방의 방법을 사용해 당시 화제를 모았다. 작가 이인화는 『영원한 제국』을 발표하기 1년 전에 데뷔작인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로 혼성모방(패스티쉬) 논쟁을 일으켰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영원한 제국』도 비평되었던 것이다. 이인화에 따르면 “혼성모방이란 소설 속에 「믿을 수 없는 나」를 만드는 기법이다. 현실 속을 걸어 다니는 어떤 인물을 재현한 것이라는 「재현」 원칙을 포기하고 현실에 「기원」이 없는, 다른 많은 소설들의 모사로 이루어진 나를 만든다”<sup>40)</sup>고 한다. 즉, 혼성모방을 통해서 이인화는 “현실”을 재현하기 보다는 “다른 많은 소설들”을 짜깁기해서 소설을 썼다. 이는 현실 재현을 최우선시하는 전통적인 문학관에서 탈피해 문학의 소재로서 “현실”보다 허구의 “많은 소설들”을 더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인화는 작위적으로 허구를 구성해 현실을 대체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영원한 제국』도 해석할 수 있다. “작가의 말”에서 이인화는 “허구화”를 위해 “움베르토 에코(『장미의 이름』), 코난 도일(『바스커빌의 개』), 존 디슨 카(『연속 살인사건』), 로베르트 반 홀릭(『중국 황금살인사건』) 등 여러 추리소설의 모티프들을 응용하였다”(『제국』, 357)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승옥은 “작품의 많은 부분을 다른 추리소설로부터 패스티쉬적으로 차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영원한 제국』은 “어떤 잘못된 역사의 사실을 복원하거나 진실을 밝혀 내려는 노력으로부터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 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무거운 역사 소설들과는 확연하게 구분”된다고 평가한다.<sup>41)</sup> 다시 말해, 『영원한 제국』은 움베르토

40) 이인화, 「새 기법 「관행」으로 평가 말자- 표절시비 「내가 누구」 작가 이인화씨의 반론」, 『중앙일보』, 1992.5.18., 13면.

에코의 『장미의 이름』과 같은 추리 소설과 조선의 역사를 조합해 화제를 모았다고 할 수 있다. 『영원한 제국』의 0장에서 작중 화자인 ‘나’는 “역사의 진실이라는 어떠한 진리의 주장도 포기하고 아예 소설을 쓴다”(『제국』, 15)고 하며 작품 내용이 실제 역사에 환원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과거의 “민중지향적 대장편 역사소설”은 민중사관이나 진보적 역사주의와 같은 거대담론에 기초해 지배 이데올로기에 가려진 “역사의 진실”을 찾고자 했다. 이에 반해, 『영원한 제국』은 실재와 허구의 경계를 허물며 “역사의 진실”을 탈구축하려고 했다.

이처럼 『영원한 제국』은 여러 텍스트들을 혼성모방해 거대담론의 역사관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이러한 작가의 의도가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연구자도 있어 해체주의적 성향이나 포스트모던 역사관을 『영원한 제국』으로부터 읽어내기도 한다.<sup>42)</sup> 과거의 영웅서사에 없었던, 새로운 작법과 주제의식을 『영원한 제국』에서 찾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 반론을 제기하는 연구도 많다. 우선, 『영원한 제국』에는 작가가 내세우는 주장과 모순되는 내용이 보인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면, 설준규는 세계관의 대립에 관한 작중 화자의 논의가 “온전한 소설적 형상화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sup>43)</sup> 특히 정조에 대항하는 노론이 작중 화자의 해설과는 달리 전형적인 악역으로 그려지고 있

41) 김승욱, 「포스트 모던」한 시대의 담화 형식, 『월간 문화예술』 173 (1993년 12월), 1993. [https://www.arko.or.kr/zine/artspaper93\\_12/19931214.htm?fbclid=IwAR2i\\_mkzIqsXqciayNCbY\\_-bjfH\\_wLDWanXokNSLoSwCqU6nkW7mIfoIyyo](https://www.arko.or.kr/zine/artspaper93_12/19931214.htm?fbclid=IwAR2i_mkzIqsXqciayNCbY_-bjfH_wLDWanXokNSLoSwCqU6nkW7mIfoIyyo) (검색 일자: 22.9.17.)

42) 예를 들어, 김정자는 권력 경쟁에서 밀려난 약자·소수자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는 점, 정사가 아닌 야사로 역사를 재구성했다는 점을 들어 『영원한 제국』에는 “역사 다르게 읽기”, 즉 포스트모던 사관이 엿보인다고 지적한다. 또한 액자식 구성의 테두리를 넘나들며 허구의 주인공과 실제의 작가를 혼동하게 한다는 이유를 들어 『영원한 제국』에 “해체소설적 성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김정자, 「역사 다르게 읽기, 그 허와 실에서 본 소설 〈영원한 제국〉」, 『현대소설연구』 15, 2001, 380-393면.)

43) 설준규, 「소문난 잔치의 먹물거리: “세계관의 대립”? (이인화 장편소설 『영원한 제국』, 세계사 1993)」, 『창작과비평』 82, 1993, 426면.

는 점을 들어 “다툼의 한쪽 세력이 지닌 부정적 측면을 이같이 일방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소설이 어떻게 “세계관의 충돌”을 온전히 그려냈다고 할 수 있겠는가?”<sup>44)</sup>라고 반론한다. 즉, 이문열이 주장하던 “세계관과 세계관의 충돌”이 작품 속에서 제대로 형상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영원한 제국』은 일원화되었다는 비판이 많다. 다시 말해, 『영원한 제국』의 실제 작가인 이인화와 주인공 이인몽, 혹은 이인화와 작중 화자인 ‘나’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은자는 보통 액자식 구성의 소설들은 ‘낯설게 하기’를 하는 데 반해, 『영원한 제국』은 작중 화자와 작가의 거리가 거의 없어 “독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자세를 갖지 못하게 한다”<sup>45)</sup>고 말한다. 또한 최민성에 따르면 주인공인 이인몽은 작가인 이인화의 분신에 해당하며 『영원한 제국』의 서사 전략은 독자들이 감정이입하기 좋은 주인공을 내세워 저자의 시선에 동조하도록 만드는 것에 있다.<sup>46)</sup> 이렇게 작가와 주인공 사이에 비판적인 거리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허구성과 혼성모방을 강조한 작품의 가치는 퇴색된다. 또한 역사 속 위인을 일방적으로 찬양하던 과거의 영웅서사와 다른 점도 찾을 수 없게 되고 90년대에 유행했던 해체주의나 포스트모던과의 접점도 사라지고 만다.

본 논문은 위의 비판들에 동의하면서 특히 『영원한 제국』이 특정한 역사관을 잣대로 과거를 재단한 점을 문제 삼는다. 『영원한 제국』에서는 작중 화자인 ‘나’가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간에 직접 등장해 지난 역사를 비

44) 설준규, 앞의 글, 427면.

45) 이은자, 「역사추리소설의 대중성과 문학적 가능성-이인화의 『영원한 제국』을 중심으로」, 『추리소설이란 무엇인가-대중문학연구 3』, 국학자료원, 1997, 각주 26.

46) 최민성, 「정조(正祖) 스토리텔링의 구조와 의미-소설 『영원한 제국』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Vol.49, 2016, 182-183면. 이와 관련지어, 최민성은 『영원한 제국』 개정판의 인터뷰에서 이인화가 “둘(이인몽과 이인화-인용자) 사이에는 아무런 질적 차이도 없었습니다”(이인화, 『개정판 영원한 제국』, 세계사, 2006, 399면.)라고 대답한 사실을 들며 “저자가 스스로 끝남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인공이 끝남인 이인몽으로 설정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최민성, 앞의 논문, 183면)라고 말한다.



평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예를 들면, 정조에 대한 이인몽의 충성을 서술하면서 ‘나’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역사를 돌아본다.

우리는 그 〈진보적〉이라는 입헌 정치를 못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홍재 유신, 즉 정조의 절대왕정을 수립하지 못해서 망한 것이다.

후진적인 여건에서 분발하여 자주적인 민족 국가를 수립했던 모든 나라는 절대주의 국가의 시기를 거친다. 대내적으로 강력한 통치 원리로 무장하고 대외적으로 자국의 국익을 배타적으로 주장하는 과도기가 필요한 것이다. (중략)

홍재 유신이 실패함으로써 우리 민족사는 160년이나 후퇴했다. (『제국』, 266)

인용문에서 ‘나’는 “우리 민족사”의 흥망을 좌우한 인물로 정조를 선정하며 그의 절대왕정을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그 근거로서 ‘나’는 “모든 나라는 절대주의 국가의 시기를 거친다”는 역사 법칙을 거론한다. 또한 정조의 홍재 유신이 실패했기에 “우리 민족사”는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160년이나 후퇴했다”고 단정 짓는다. 인용문의 “모든 나라”나 “우리 민족사”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세계와 공동체를 설명하는 거대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70-80년대에 유행한 대하 역사소설들의 민중사관이나 진보사관과는 정치적 입장이 다르지만 하나의 가치관으로 공동체를 구축한다는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게다가 여타의 거대담론처럼 『영원한 제국』도 자신의 견해를 상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영원한 제국』에서는 ‘나’가 설명하는 “우리 민족사”를 의심하거나 반박하는 관점이 등장하지 않는다. ‘나’가 서술하는 이야기는 “역사의 진실”로서 오늘날의 독자에게 직접 제시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영원한 제국』은 “세계관과 세계관의 충돌”을 그리며 혼성 모방의 방법으로 기존의 거대담론을 탈구축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실

제로는 선과 악의 이분법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새로운 거대담론을 구축해 정조를 이상화한다. 『영원한 제국』을 보면 주인공 이인몽의 입을 빌려 “다만 그 옆에 앉은 이인몽만은 반한 여자를 쳐다보듯 정조의 번득이는 눈매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 이 같은 임금님이 어느 세상에 또 있을까” (『제국』, 199) 혹은 “천 년에 한 번 만나기 어려운 성군이시다” (『제국』, 200)과 같이 정조를 칭송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김백철에 따르면 90년대 이전에 정조는 무능하고 나약한 왕으로 인식되었으나 『영원한 제국』의 흥행으로 정조의 영웅화가 가속화되었다.<sup>47)</sup> 다시 말해 『영원한 제국』은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정조를 불세출의 성군으로 묘사해 ‘정조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이러한 영웅서사가 인기를 끈 이유를 90년대 상황에서 찾는 동시대 담론도 적지 않다. 황도경에 따르면 『영원한 제국』에는 “1993년의 포스트모던 시대에 갑작스레 떠오른 절대 왕정에 대한 향수”가 나타나기에 “포스트모던 문화에 숨은 음험한 복고주의”를 경계해야 한다.<sup>48)</sup> 또한 한만수는 정조를 그리워하는 『영원한 제국』의 내용으로부터 박정희에 대한 향수를 읽어내고 있다.<sup>49)</sup> 한만수에 따르면 『영원한 제국』의 주제의식은 “선의의 독재 (왕권주의)야말로 이상적인 정치제도”라는 것이며 이는 결국 박정희 찬양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sup>50)</sup> 조명기도 “신보수주의라는 정치적 조류

47) 김백철, 「1990년대 한국사회의 ‘정조신드롬’ 대두와 배경 -나약한 임금에서 절대계몽군주로의 재탄생-」, 『국학연구』 18, 2011, 15-18면.

48) 황도경, 「포스트모던적 글쓰기에 숨은 복고주의의 위험성: 『영원한 제국』, 이인화 著 (書評)」, 『서평문화』 12, 1993, 10-14면.

49) 한만수, 「90년대 베스트셀러 소설, 그 세계관과 오락성 -『소설 동의보감』, 『천년의 사랑』,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영원한 제국』,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20, 1998, 201-202면. 한만수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와 『영원한 제국』에 대해 “무궁화와 영원한 제국 두 작품 모두 개발독재에 대한 긍정이요 박정희신드롬의 문학적 표현이며, 결국 힘 이데올로기의 신봉”이라고 평가한다.

50) 이와 같이 『영원한 제국』이 박정희에 대한 동경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한 선행연구는 많다. 예를 들면 이은자는 “정조의 흥재유신을 긍정하는 이인몽의 대사를 꼼꼼히 살펴보면 박정희의 개발독재의 정당성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은자, 앞의 논문, 246

와 포스트모더니즘을 정교하게 꿰매는 작가”의 소설로서 『영원한 제국』을 평가하며 이 작품으로부터 “지극히 권위적인 보수성”을 읽어내고 있다.<sup>51)</sup> 조명기에 따르면 이러한 소설은 사회주의가 붕괴한 시대에 새로운 거대담론으로서 기능해 “허상적인 편안함”을 제공한다.

이러한 동시대적 비평으로부터 당시의 시대 분위기를 읽어낼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가 몰락하고 학생운동이 실추하면서 한편에서는 개인주의와 허무주의를 내세운 『상실의 시대』가 화제를 모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영원한 제국』처럼 새롭게 권위를 구축하는 서사가 인기를 끌었다. 기존의 거대담론이 붕괴된 시대에 공허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는 반면 공백을 채우기 위해 보수적인 거대담론을 부활시키는 이들도 등장한 것이다. “일군만민(一君萬民)! 하나의 임금 아래 평등한 만민!”(『제국』, 283)을 『영원한 제국』이 외치듯이, 90년대 유행한 영웅서사는 절대적인 권위에 기대 공동체를 통합시키는 것을 희구한다. 이러한 영웅서사는 공동체에 관한 거대담론을 탈피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역사소설들과 구분되는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

## 2) 『은영전』의 상대주의와 “후세의 역사가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은영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90년대 초반에 번역된 『은영전(은하영웅전설)』도 ‘영웅전설’이라는 타이틀이 말해주듯 영웅서사를 전개한다. 말을 탄 전사가 나팔을 불며 포효하는 표지 그림이나 “은하계에서 펼쳐지는 대로망, 웅대무비한 우주

면)고 주장하고 오혜진은 “정조의 홍재유신이 가진 의의를 계속해서 실과함으로써 정조의 유신이 필요했고 박정희의 유신 역시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도까지 내비친다”고 해석한다. (오혜진, 「역사추리소설의 진원지에 대한 고찰 -이인화의 『영원한 제국』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67, 2016, 218면.)

51) 조명기, 「90년대 대중(위에 군림하는)소설 -『아버지』, 『천년의 사랑』,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영원한 제국』을 중심으로-」, 『오늘의 문예비평』, 1997, 142면.

의 대서사시'와 같은 광고 문구를 통해서도 『은영전』의 장르적 특성은 명백히 드러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영전』은 90년대의 담론 지형에서도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영원한 제국』과의 비교를 통해 그 위상을 밝히도록 하겠다.

앞에서 『영원한 제국』은 “세계관과 세계관의 충돌”을 묘사하고 혼성모방을 통해서 “역사의 진실”을 해체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성격을 『은영전』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영원한 제국』은 성군인 정조를 받들어 중앙집권을 강화하려는 남인과 왕권을 견제해 권력을 분산시키려는 노론의 갈등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은영전』의 구도도 이와 매우 흡사하다. 『은영전』은 최고의 명군인 라인하르트 황제와 이를 제어하려는 안 웰리의 대립을 축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은영전』에서는 라인하르트와 안 웰리가 싸우는 이유를 “그들 서로가 싸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가치관 중에 단 한 가지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사회적 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권력을 집중해야 하는가 분산시켜야 하는가? 바로 그 점에 대적의 이유가 있었다” (8-74)와 같이 명료하게 표현한다. 그런데 이는 『영원한 제국』의 주제라고 말해지는 “세계관과 세계관의 충돌”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영원한 제국』처럼 『은영전』도 혼성모방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작가인 다나카 요시키는 동서고금의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활용해서 『은영전』을 완성했다.<sup>52)</sup> 그 집필 과정에 대해 다나카 요시키는 “라

52) 어린 시절부터 역사서를 즐겨 읽던 다나카 요시키는 가쿠슈인 대학에서 중국 정통 24사(二十四史) 중 하나인 『명사(明史)』와 고다 로한(幸田 露伴, 1867-1947)의 소설을 비교하는 석사논문을 쓸 정도로 역사에 대한 조예가 깊다. 다나카는 폭넓은 역사 지식을 바탕으로 작품을 쓰는 것으로 유명한 『은영전』의 후속작인 『아르슬란 전기(アルスラーン戦記, 1986-2017)』도 페르시아와 비잔틴 제국, 십자군 전쟁을 모티브로 삼고 있다. 일본에서 출간된 『은하영웅전설 연구서설』에 따르면 『은영전』은 히틀러의 나치 정권,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조와 신분제, 신성로마제국, 중세 이탈리아의 무역도시국가, 로마 제국의 기독교, 트로이 전쟁, 중국의 위진 남북조 시대, 『수호지』 이야기, 마오쩌둥의 대장정 등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실제로 참고했거나 연상시킨다. (『銀英伝』 研究特務班, 『銀河英雄伝説』 研究序説, 三一書房, 1999,

인하르트는 매우 화려한 모델이 여럿 있습니다. 나폴레옹이라든가 알렉산더 대왕이라든가, 스웨덴의 칼 12세라든가. 그런 모델에게서 필요한 부분을 이것저것 따와서 합쳐 만든 거죠.”<sup>53)</sup>와 같이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다나카 요시키는 수많은 위인들이나 역사 사건들을 작위적으로 짜집기해서 허구의 캐릭터와 서사를 구축한 것이다. 이러한 『은영전』의 성격은 국내에 작품이 소개될 당시에도 거듭 강조되었다. 90년대 초반 일간지에 실린 『은영전』의 광고 문구를 살펴보자.

은하계에서 펼쳐지는 대로망. (중략) 마치 삼국지를 연상케하는 권력자간의 암투와 모사, 은하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사건 전개가 시종 독자를 사로잡는다. 시공을 초월해도 변치 않는 인간들의 권력욕, 정의를 세우려는 기사도정신 등등 소설속에 담긴 희노애락도 좋은 교훈거리의 하나다.<sup>54)</sup>

인용문에 따르면 『은영전』은 동양의 “삼국지”와 서양의 “기사도 정신” 등이 혼종된 은하계의 “대로망”이다. 『영원한 제국』이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과 조선의 역사를 조합해 화제를 모았듯이 『은영전』도 동서양을 혼성모방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선전했다. 90년대 초반에 『영원한 제국』과 『은영전』은 공통적으로 “세계관과 세계관의 충돌”이나 혼성모방을 진경화했고 여기에 독자들이 열렬히 호응해 두 작품은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영원한 제국』과 『은영전』은 유사점을 보이고 있으나 그 지향하는 목표는 달랐다. 먼저, 『영원한 제국』은 혼성모방을 통해 역사와 허구의 경계를 해체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새로운 거대담론을 구

pp.180-268.)

53) 다나카 요시키(지), 김원(역), 「은하영웅전설을 만드는 법 -다나카 요시키 인터뷰 Part1」, 『은하영웅전설 1 -여명편』, 디앤씨미디어, 2011, 398면.

54) 1992년 8월 12일자 『동아일보』 12면 광고.

축해 역사 속 위인을 이상화했다. 단적으로 말해, 『영원한 제국』은 실재하는 현실 속 권위를 추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제국』은 정조나 박정희 같은 실재 인물에 대한 노스텔지어를 자극하고 90년대에 ‘정조 신드롬’이나 ‘박정희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은영전』은 철저하게 허구를 지향한다. 『은영전』은 시대나 지역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온갖 역사인물과 사건들을 뒤섞고 있다. 이렇게 인용된 역사는 본래의 역사적 문맥으로부터 단절되어 파편화된다. 그런데 역사적 파편들 속에서 본래의 문맥을 대신하는 새로운 역사적 흐름이 발생하는 것이다. 작가 다나카 요시키는 “처음엔 완전히 엉터리에 제멋대로 설정한 사실일지라도 그것이 점차 존재감을 지니게 되면 ‘역사의 흐름을 고려한다면 절대로 이렇게는 안 되지’와 같은 일들이 발생해버린다”<sup>55)</sup>라고 말하며 인위적으로 설정한 허구의 역사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역사의 흐름”이 발생하면 작가도 이를 거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다나카 요시키에 따르면 허구의 역사에서도 실재와 무관하면서 고유의 논리를 가진 “역사의 흐름”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지닌 『은영전』은 실제 역사에 버금갈 만큼 장대한 시공간을 지니게 된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역사는 한정된 시간적 제약을 지닌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은영전』은 그렇지 않다. 『은영전』에서는 자유행성동맹과 은하제국의 양대 체제가 붕괴되는 우주력 796년부터 801년까지 5년 간 일어난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서사하고 있다. 그런데 작품 속 사건들이 일어난 근본적 원인을 해설하기 위해 수 백 년에 걸친 전사(前史)를 플래시백 기법으로 소개한다. 예를 들면, 현재의 자유행성동맹과 은하제국의 체제가 어떻게 탄생하고 서로 대립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인류가 어떤 계기로 우주로 진출했는지, 모두의 고향이었던 지구가 몰락한 이후에 인류는 왜 독재정치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여기

55) 田中芳樹, 「田中芳樹インタビュー PART 2」, 『田中芳樹読本』, 早川書房, 1994, p.86.

에 반발한 공화주의자들이 어떻게 천신만고 끝에 자유행성동맹을 건국하게 되었는지 작중 화자는 틈틈이 지난 역사를 회고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은영전』은 현재 서사하는 사건이 단절되어 있지 않고 자체적인 “역사의 흐름”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다만 이것만으로 『은영전』이 90년대 담론 지형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세계를 서술하는 장르소설들은 대부분 독자적인 시공간적 배경을 지니고 있기에 『은영전』만이 방대하게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을 그리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예를 들어 SF 대작으로 손꼽히는 아이작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과 프랭크 허버트의 『듄』 등은 수 천 년의 인류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이 작품들은 모두 『은영전』이 출간된 1990년대 초반에 이미 한국에 소개되어 한국 독자들에게 허구의 시공간의 광대함을 선보인 적이 있다.<sup>56)</sup>

그렇다면 『은영전』은 동시대 다른 소설들과 어떤 차이를 지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로 하자. 먼저 『은영전』의 인물 묘사에 관해 알아보겠다. 전형적인 영웅서사가 그러하듯 『은영전』은 소수의 영웅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러한 영웅들은 결코 평면적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작가인 다나카 요시키는 『사기』 「열전」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시점에서 『은영전』의 등장인물들을 조명했다고 주장한다.<sup>57)</sup> 예를 들어, 주인공의 관점

56) 『은영전』이 출시된 1991년에 현대정보문화사는 아이작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을 출간하면서 “인류 문명의 퇴보를 3만년 단축시키기 위한 헨리 셸던의 대계획”이라고 홍보했고 (1991년 8월 16일 『한겨레』 5면의 광고) 1992년 8월 6일 『동아일보』에는 『은영전』과 함께 프랭크 허버트의 SF 소설 『듄』 (강무홍·박정선 역, 풀빛)의 선전 광고가 실렸다.

57) 다나카 요시키는 『은영전』을 창작할 당시, 일본 문학자 다케다 다이준의 『사기』 해설서(武田泰淳, 『司馬遷 一史記の世界』, 講談社, 1965.)로부터 많은 시사를 얻었다고 말한다. 다케다 다이준에 따르면, 사기 열전에 등장하는 A라는 인물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A의 전기뿐만 아니라 B나 C의 전기를 읽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사기 열전에서는 B나 C의 관점을 빌려 A의 입체적인 면모를 형상화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케다 다이준의 해설을 바탕으로 다나카 요시키는 『은영전』을 구성했다고 밝힌다. (田中芳樹, 『田中芳樹インタビュー PART 2』, 『田中芳樹読本』, 早川書房, 1994, pp.84-85.)

에서 그 영웅적인 활약상을 그리는 게 아니라 다른 등장인물들의 눈에 비치는 주인공의 모습들을 다각적으로 조명한다. 불세출의 영웅이라도 반대편 적의 입장에 서지 않으면 그 전모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다나카 요시키의 생각이었다. 실제로 『은영전』에서는 끊임없이 시점을 바꾸며 주인공들이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야기를 이어간다. 그런 과정에서 한 쪽 시점에서는 보이지 않는 주인공들의 다양한 면모가 드러난다.

구체적 사례를 들자면, 은하제국에서 비밀경찰을 관장하는 랭은 음험한 권모술수를 피하는 모략가로서 『은영전』에서 줄곧 부정적으로 그려진다. 그런데 음모죄로 처형되는 시점에 이르면 『은영전』은 랭의 부인의 입장에 서서 랭이 얼마나 가정에 충실한 훌륭한 가장인지 서술한다. 그러기에 평소 랭을 경멸하고 라인하르트 황제에 심복하는 케슬러 장군조차 부인과 면담하고 난 뒤에 “케슬러는 인간이 지닌 양면성의 낙차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인과 사인(私人)의 두 얼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선, 라인하르트나 로이엔탈보다 랭의 경우가 훨씬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것이었다”(9-302)라고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은영전』은 랭의 사후, 케슬러의 입을 빌려 랭의 가족 관계를 언급하면서 동시에 영웅인 라인하르트나 로이엔탈이 “사인(私人)”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은영전』은 후세의 사람들의 눈에 주인공들이 어떻게 비치는지 자세히 서술한다. 『은영전』에서는 일찍 최후를 맞은 주인공들을 회고하는 장면이 유난히 많다. 은하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인 키르히아이스는 작품 초반에 죽었고 자유행성동맹을 이끌던 얀 웬리도 작품이 1/4이나 남았는데 허망하게 죽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등장인물들이 그들을 지속적으로 회고하고 평가하기에 생전보다 오히려 더 비중 있게 주인공들이 다뤄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은영전』의 특징은 “후세의 역사가들”이라는 화자들을 통해 가장 잘 드러난다. 그리고 여기에 여타의 영웅서사 작품들과 다른 『은영전』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후세의 역사가들”은 작품 속에서



큰 변화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등장해 그 역사적 의미를 다각도로 논평한다. “후세”의 시점에 서게 되면 『은영전』의 사건들과 인물들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어떠한 사건도 명확한 실상을 알 수 없고 어떤 등장인물이라도 이중적인 모순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그러기에 “후세의 역사가들”은 각양각색의 해석을 제시하는데 『은영전』은 이를 소개할 뿐, 가치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은영전』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라고 말할 수 있는 패밀리런 전투가 종식한 뒤 “후세의 역사가들”은 다음과 같은 해석들을 늘어놓는다.

이 싸움의 승패는 명쾌하지가 않았다. 누가 승자인지 그 점에 대해선 전사가들의 견해가 중구난방이어서 통일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쌍방의 사상물이 모두 70퍼센트를 상회했다는 것은 전투사상 유례가 없는 일인 것만은 확실하나 쌍방을 놓고 승패를 가늠하기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럼 무승부란 말인가? 동맹군의 승리를 주장하는 쪽의 견해는 이러했다.

(중략)

한편 제국군 측의 승리를 주장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폈다.

(중략)

또한 엄정 중립의 자세를 지키면서 공과를 공평하게 다룬 전사가들도 적지않았다.

(중략)

그 중 어느 주장이 타당한가는 현명한 독자들이 판단할 일이다. 어쨌든 이 문제는 후세로 접어들면서 많은 저작의 자료가 되었고, 무수한 전사가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아직도 그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5-330-332)

인용문에서 “후세의 역사가”들은 “동맹군의 승리를 주장하는 쪽”과 “제국군 측의 승리를 주장하는 자”, “공과 과를 공평하게 다룬 전사가” 등으

로 나누어 전쟁의 승패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린다. 그런데 이러한 “후세의 역사가들”은 제국과 동맹에 대해 각기 다른 정치적 입장을 지니고 있기에 견해차를 좁힐 수가 없다. 이에 대해 작중 화자는 어떠한 판단도 유보한 채 역사에는 무수한 해석이 있으며 이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데 그친다.

특히 『은영전』은 “후세의 역사가들”이 다수 있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다수의 “후세의 역사가들”은 매우 다양하기에 정치적인 입장뿐만 아니라 젠더적인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안네로제라는 여성 캐릭터가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동생, 라인하르트 황제에 냉담한 것에 대해 여성과 남성 역사가는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

훗날 안네로제의 라인하르트에 대한 애정이 결핍되어 있다고 단정하여, 그녀를 비난하는 역사가들은 대부분 여성들이었다. 그에 대해 남성 역사가들은 심한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중략) 하지만 남성 역사가의 이런 평가가 반드시 옳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9-311)

위의 인용문에서도 작중 화자는 남성 역사가와 여성 역사가 중 어느 한 편을 들기보다는 서로 다른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여성 역사가들은 하나뿐인 혈육인 동생과 거리를 두는 안네로제의 냉정함을 강조하는 반면, 남성 역사가들은 동생이 정신적으로 자립하도록 일부러 소원하게 지내는 안네로제의 자제력을 높이 평가한다. 인용문에서는 옳고 그름을 가리키기보다 남성과 여성 역사가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서로 모순되는 역사가들의 해석을 전부 서술하며 안네로제가 동생 라인하르트에게 갖는 복잡한 감정들을 다각도로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안네로제는 더욱 입체적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후세의 역사가들”의 목소리들 때문에 『은영전』에서는 어떠한 대상도 절대적인 권위를 지닐 수 없게 된다. 전체 이야기를 서술하는 작

중 화자도 예외가 아니다. “후세의 역사가들”은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에 관해 작중 화자에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작중 화자가 서술하는 역사는 절대적인 진실이 아니며 수많은 관점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은영전』이 역사서의 형식을 지니고 있기에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은영전』의 작중 화자는 등장인물들이 남긴 일기, 메모, 증언, 공식 기록 등 사료들을 종합하며 역사를 쓰고 있다. 따라서 사료가 남아 있지 않거나 문서로 확인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작중 화자는 알 수 없다고 단언한다. 주인공 안 웬리의 사례를 들자면 “안 웬리가 남겨놓은 단편적인 메모들이 올리안 민츠에 의해 정리·발표되었는데, 그중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눈길을 끈다.”(10-152)와 같이 사료의 정확한 출처를 밝히거나 “그후 안이 어떤 논리를 전개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다. 그의 죽음과 동시에 그의 머릿속의 사상이 문서화될 가능성도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 웬리의 나머지 사상은 영원한 의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10-153)와 같이 주인공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료가 없으면 그를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이렇게 신중을 기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후세의 역사가들”은 작중 화자에 대한 의심을 쉽게 풀지 않는다. 그래서 작중 화자가 제시하는 사료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안 웬리에 관한 서술 내용을 비판한다. 다음 인용문을 통해 “후세의 역사가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작중 화자의 서술에 반박하는지 살펴보자.

a. 아무튼 안 웬리의 생애와 업적과 사상 등이 거의 완전한 형태로 기록되어 후세에 전해졌다는 점에선 올리안의 공로를 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물론 기록의 정확성이나 객관성에 대해선 다소의 의문을 제기하는 자가 있긴 했다. (9-147)

b. 만일 자유행성동맹이 항복한 후 은하제국의 주도권에 복종했더라

면, 먼저 안 웬리는 모살당했을 것이며 민주공화정치는 손톱만큼의 조각도 남아 있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울리안은 생각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울리안의 가치관일 뿐, 그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10-254)

c. 그러나 후세의 역사가 중에는 이와 반대로 냉정하게 비판하는 자도 없지 않았다. (중략) 살아서도 죽어서도 안 웬리가 인류의 행복을 위해 공헌한 업적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8-192-193)

d. 당시 인류사회에 있어, 최대의 군사적 재량이 자주 충돌하고 수백만의 장병들이 이젤론 회랑을 핏물로 적서가며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인 데 대해 두 사람(안 웬리와 은하제국 황제- 인용자)은 공동의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과연 회피할 수 없는 비극이었는지, 두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자성해야 마땅할 것이다. -J.J. 피사돌 『영웅적 역사』 (8-75)

『은영전』 전편에 걸쳐 작중 화자는 울리안 민츠가 남긴 기록들에 근거해 자유행성동맹과 민주공화정치를 지킨 영웅으로서 안 웬리를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후세의 역사가들”은 안 웬리의 양아들인 울리안 민츠가 남긴 기록의 객관성을 문제 삼으며 작중 화자에게 이의를 제기한다. 특히 작중 화자는 『은영전』에서 안 웬리가 없었다면 민주공화정치는 사라졌을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후세의 역사가들”에 따르면 이는 울리안 민츠의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하며 얼마든지 다른 역사 해석 방식이 있다. 그래서 “후세의 역사가들”은 작중 화자가 울리안 민츠에 경도되어 있다고 반발하며 실제 역사는 다를 수 있다고 안 웬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은영전』에서는 “J.J. 피사돌”이라는 가상의 역사가까지 인용하며 안 웬리 때문에 인류가 필요 이상으로 피를 흘린 점을 문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후세의 역사가들”은 작중 화자가 서술하는 안 웬리의 영웅적인 행보의 양면성을 밝힌다. 전술했듯이, 안 웬리는 “신념”이나 “절대적인 정의”에 대해 강한 의심을 품고 있었기에 민중들에게 지지 받는 은하제국이 우주를 통일하는 것을 저지하고 분권주의를 실현시켰다. 이러한 점이 업적으로 인정받아 안 웬리는 영웅이 되었고 그를 칭송하는 서사도 만들어졌다. 그런데 “후세의 역사가들”은 안 웬리의 영웅서사와 다른 목소리를 내며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조망할 것을 독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는 안 웬리가 영웅으로서 지니는 권위를 전복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 『은영전』은 기존의 지배적인 체제를 부정했다는 이유로 안 웬리를 영웅으로 만들고 다시 “후세의 역사가들”의 목소리를 빌려 그 영웅서사를 해체하는 것이다. 안 웬리가 작품 세계에 현존하는 지배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한다면 “후세의 역사가들”은 메타 레벨에서 안 웬리에 몰입하는 독자들의 감상을 해친다.

위와 같이 서술되는 『은영전』의 역사는 거대담론으로 흡수되지 않는다. 객관적인 리얼리즘과 단선적인 역사관에 입각한 역사는 거대담론의 대표적 사례로 자주 거론된다. 거대담론으로서의 역사는 절대적인 진실을 추구하고 공동체를 통합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은영전』은 실제 현실과 무관한 환상과 허구로 역사를 구성하고 더욱이 이를 상대화한다. 해체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은영전』은 자신이 서술하는 역사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우주는 하나의 극장이며 역사는 작자 미상의 희곡이다.”(7-61)와 같은 문구가 반복적으로 등장할 정도로 『은영전』은 작품 속 세계가 인위적으로 연출한 무대라는 것을 계속 암시하고 있다. 게다가 안 웬리가 “자기는 역사라는 연극 속의 대역배우에 불과하므로 보다 뛰어난 연기력을 지닌 연기가 등장한다면 그 배역을 아쉬움없이 내주고 관람석으로 내려앉겠다”(7-60-61)라고 고백하고 율리안 민츠가 “우리들의 정신 상태는 첫 공연을 앞둔 배우들의 심정과 비슷했다.”(10-126)라고 말하듯이 등장인물들은 자신들이 무대 위 배우라고 자각하고 있었다. 다시 말

해, 『은영전』은 현재 서술하는 역사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일원적이고 보편타당한 진실로서 역사를 규정하는 거대담론과 구분되는 역사인식을 『은영전』은 나타내며 새로운 형태의 역사를 독자들에게 선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은영전』은 90년대 유행했던 영웅서사와는 매우 대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영원한 제국』이 독자가 역사상 실재했던 권위를 추종하도록 유도했다면 『은영전』은 실재를 대체할 만한 가상의 역사를 제시한다. 『영원한 제국』이 단선적이고 일관된 관점에서 영웅을 묘사했다고 한다면 『은영전』은 모순되고 다양한 관점에서 신화를 해체한다. 『영원한 제국』은 위인과 영웅을 정점으로 공동체가 통합되는 거대담론을 지향했는데, 이와 달리 『은영전』은 현재 서술하는 역사를 끊임없이 탈구축하며 거대담론을 회피한다. 이와 같은 차이를 보이기 위해 90년대 한국에서 『은영전』을 읽는 독자들은 『영원한 제국』과 판이하게 다른, 복수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당시 부상하던 보수적인 권위와 거대담론을 상대화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은영전』은 90년대 한국 사회에서 역사를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시점을 구축했던 것이다.

#### 4. 결론

『은영전』은 90년대 한국의 대표적인 베스트셀러이다. 지금까지도 자주 인용될 정도로 90년대에 『은영전』은 강렬한 인상을 한국 독자들에게 남겼으나 이에 관한 연구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90년대 한국에서 『은영전』이 왜 인기를 끌었고 한국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90년대 베스트셀러인 『상실의 시대』와 『영원한 제국』과 비교하는 연구방법론을 선택했다. 『상실의 시대』는 한국에서 거

대담론이 실추한 90년대의 정서를 담아낸 작품으로 많은 화제를 모았고 『영원한 제국』은 ‘정조 신드롬’이나 ‘박정희 신드롬’과 같이 보수적인 권위가 부활하는 90년대 분위기를 표현해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올랐다. 개인의 일상과 취미를 자세히 묘사하는 『상실의 시대』와 전제군주의 이상적인 정치를 논하는 『영원한 제국』은 90년대의 두 가지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즉, 기존의 담론 질서가 붕괴된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개인주의와 신보수주의를 각각 대변하며 90년대에 폭넓은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작품들과 『은영전』을 비교해보면 『은영전』이 90년대의 담론 지형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다. 일단 『은영전』은 절대적인 신념을 혐오하는 안 웬리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거대담론에 대한 불신과 기존 체제에 대한 반감을 그리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상실의 시대』의 정동과 상통하고 있으며 국가 정치보다 개인의 취향을 우선시하는 가치관도 서로 일치한다. 물론 가상의 역사를 서술하는 『은영전』은 『상실의 시대』와 장르가 다르지만 기저에 흐르는 주제의식은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기에 거대담론의 종언을 환영하는 90년대의 독자라면 『상실의 시대』와 『은영전』을 동시에 즐길 수 있었다.

한편, 영웅서사를 표방한 『은영전』은 『영원한 제국』과 공통점이 많다. 두 작품 모두 영웅이나 지도자와 같은 인물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고 있으며 권력 집중과 분산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 서술 방식에서 두 작품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은영전』은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끊임없이 상대화하는 데 반해, 『영원한 제국』은 독자들이 과거에 실재하던 권위를 동경하도록 만든다. 90년대에 『영원한 제국』이 새로운 신화를 구축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은영전』은 영웅서사의 형식을 빌려 역사를 탈구축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은영전』은 『영원한 제국』의 대척점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거대담론이 붕괴되고 새로운 권위를 모색하던 90년대에 『은영전』은 가상의 역사를 만들고 해체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당시 독자들에게 다양한 역사관을 제

시했던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은영전』은 해체주의와 상대주의를 형상화해 90년대에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껏 『은영전』은 민주주의나 파시즘과 관련지어 논의되어 왔으나 90년대 한국을 매료시킨 정치성은 각종 신념을 해체하거나 역사의 권위를 상대화하는 것에 있었다. 『상실의 시대』나 『영원한 제국』과의 비교 연구로 본 논문은 『은영전』의 정치의식과 역사관을 분명히 밝히고 이것이 90년대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찰할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90년대의 담론 지형에서 『은영전』이 차지하는 위치를 파악하는 데 주력한 나머지, 문화산업적인 관점에서 『은영전』을 분석하지 못했다. 『은영전』은 소설뿐만 아니라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의 형태로도 90년대에 출시되어 모두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더욱이 인류학자 김효진이 “1991년, 해적판으로 출판된 다나카 요시키(田中芳樹)의 〈은하영웅전설〉은 남녀모두에게 인기를 끌었고 여기에 영향받은 패러디 소설이 PC통신을 중심으로 인기를 모았다.”<sup>58)</sup>이라고 지적하듯이 『은영전』의 2차창작도 인터넷에서 크게 유행했다. 게다가 한국의 초창기 라이프노벨이나 판타지 장르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짐작되기에 이에 관한 연구가 요청된다. 앞으로 『은영전』이 한국의 문화산업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조사해 새로운 관점에서 『은영전』의 수용사를 조명해보고 싶다.

---

58) 김효진, 「한국 동인문화와 야오이: 1990년대를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연구』 30, 2013, 277면.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 다나카 요시키 (지) 최학준 (역), 『은하영웅전설』 1-10, 을지서적, 1991.  
무라카미 하루키, 유유정, 『상실의 시대』, 문학사상, 1989.  
이인화, 『영원한 제국』, 세계사, 1993.  
田中芳樹, 『銀河英雄伝説』 1-10, 徳間書店, 1982-1987.

2. 단행본

-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432면.  
이인화, 『개정판 영원한 제국』, 세계사, 2006, 399면.  
한기호, 『베스트셀러 30년』, 교보문고, 299면.  
다나카 요시키 (지), 김완 (역), 「은하영웅전설을 만드는 법 -다나카 요시키 인터뷰 Part1」, 『은하영웅전설 1- 여명편』, 디앤씨미디어, 2011, 398면.  
東浩紀, 『ゲーム的リアリズムの誕生 -動物化するポストモダン2』, 講談社, 2007, pp.288-289.  
宇野常寛, 『リトル・ピープルの時代』, 幻冬舎, 2015, pp.43-44.  
大澤真幸, 『虚構の時代の果て—オウムと世界最終戦争』, 筑摩書房, 1996, pp.88-114.  
「銀英伝」研究特務班, 『『銀河英雄伝説』研究序説』, 三一書房, 1999, pp.180-268.  
田中芳樹, 「田中芳樹インタビュー PART 2」, 『田中芳樹読本』, 早川書房, 1994, pp.84-86.

3. 논문

- 강성환, 『『銀河英雄傳説』 등장인물의 이데올로기』, 전남대 일어일문과 석사논문, 2009, 27-127면.  
김경현, 「시평2 ‘시오노 나나미 현상’과 역사 바로 읽기」, 『역사비평』 39, 1997, 164-165면.  
김백철, 「1990년대 한국사회의 ‘정조신드롬’ 대두와 배경 -나약한 임금에서 절대계몽군주로의 재탄생-」, 『국학연구』 18, 2011, 15-18면.  
김영찬, 「무라카미 하루키, 사라지는 매개자와 1990년대 한국문학」, 『한국학논집』 72, 8-9면.  
김영현·김이구·이문재·채호기, 「거대담론이 사라진 자리에 상업성의 바람이 -90년대 문학출판의 지형도를 풀어본다」, 『출판저널』 253, 1999, 47면.

- 김정자, 「역사 다르게 읽기, 그 허와 실에서 본 소설 〈영원한 제국〉」, 『현대소설연구』 15, 2001, 377-397면.
- 김효진, 「한국 동인문화와 야오이; 1990년대를 중심으로」, 『만화에니메이션연구』 30, 2013, 277면.
- 남진우, 「오르페우스의 귀환 —무라카미 하루키, 댄디즘과 오컬티즘 사이에서 방황하는 청춘」, 『문학동네』 11, 1997, 355-380면.
- 박유희, 「총론」,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 2 : 역사허구물』, 이론과실천, 2009, 33면.
- 박천홍, 「베스트셀러로 본 90년대 문학출판」, 『출판저널』 253, 199, 10면.
- 설준규, 「소문난 잔치의 먹을거리: “세계관의 대립”? (이인화 장편소설 『영원한 제국』, 세계사 1993)」, 『창작과비평』 82, 1993, 426-427면.
- 오혜진, 「역사추리소설의 진원지에 대한 고찰 -이인화의 『영원한 제국』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67, 2016, 218-219면.
- 이은자, 「역사추리소설의 대중성과 문학적 가능성 -이인화의 『영원한 제국』을 중심으로」, 『추리소설이란 무엇인가 -대중문학연구 3』, 국학자료원, 1997, 242-249면.
- 이주형, 「한국역사소설의 성취와 한계」, 『현대 한국문학 100년』, 민음사, 1999, 184면.
- 정중현, 「뒤늦게 도착한 ‘68혁명’-1990년대 한국문학과 ‘무라카미 하루키’, ‘밀란 쿤데라’, ‘다이 호우잉’의 번역 소설-」, 『한국학연구』 58, 2020, 676-678면.
- 조명기, 「90년대 대중(위에 군림하는)소설 -『아버지』, 『천년의 사랑』,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영원한 제국』을 중심으로-」, 『오늘의 문예비평』, 1997, 142면.
- 천정환, 「한국 독서사 서술 방법론(1) -독서사의 주제와 베스트셀러 문화를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43, 2016, 31-36면.
- 최민성, 「정조(正祖) 스토리텔링의 구조와 의미 -소설 『영원한 제국』을 중심으로」, 『열상대전연구』 Vol.49, 2016, 182-183면.
- 한만수, 「90년대 베스트셀러 소설, 그 세계관과 오락성 -『소설 동의보감』, 『천년의 사랑』,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영원한 제국』,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20, 1998, 200-201면.
- 황도경, 「포스트모던적 글쓰기에 숨은 복고주의의 위험성 : 『영원한 제국』, 이인화 황 〈書評〉」, 『서평문화』 12, 1993, 10-14면.
- 황순재, 「상업적 대중소설의 이데올로기적 기반」, 『오늘의 문예비평』, 1993, 60면.

<Abstract>

A Study on the Reception of *Legend of the Galactic Heroes* in Korea of the 1990s  
–Comparing with the Best Sellers in the Early 1990s

Lee, Seok

Translated in 1991, *Legend of the Galactic Heroes (LOGH)* enjoyed popularity in Korea. In order to understand *LOGH* in the context of 1990s, this paper compares *LOGH* with the bestselling novels like *Norwegian Wood* and *Eternal Empire*.

Murakami Haruki's *Norwegian Wood* was famous in Korea for describing the mentality of the people who suffered the collapse of the grand narrative. *LOGH* also depicted the skepticism about absolute beliefs, so it contained a theme similar to *Norwegian Wood*. Along with *Norwegian Wood*, *LOGH* tried to incorporate the thought of deconstruction which was in fashion in the 1990s.

Meanwhile, *Eternal Empire* became a bestseller by representing the revival of conservatism. In contrast to *Eternal Empire*, *LOGH* challenged the authority of history. Consequently, *LOGH* constantly defamiliarized history by adopting various perspectives.

Through this comparative study, we can understand that *LOGH* established unparalleled position in the 1990s by embodying deconstruction and relativism.

Key words: *Norwegian Wood*, *Eternal Empire*, Post-modern, Deconstruction, Historical Novel

투 고 일 : 2022년 8월 21일

심 사 일 : 2022년 9월 14일

게재확정일 : 2022년 9월 14일

수정마감일 : 2022년 9월 22일